

도미니카공화국의 국가정체성 형성과 흑인의 배제: 마누엘 데 헤수스 갈반의 『엔리키요』를 중심으로*

송 병 선
울산대학교

송병선 (2012), 도미니카공화국의 국가정체성 형성과 흑인의 배제: 마누엘 데 헤수스 갈반의 『엔리키요』를 중심으로.

초 록 마누엘 데 헤수스 갈반의 『엔리키요』는 출간된 지 130년이 지났지만, 인종적 측면에서 도미니카 국민의 자기인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아직도 도미니카공화국 문학에서 정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19세기 도미니카공화국의 엘리트들은 당대에 유행했던 낭만주의 문학을 추구하고, 국가 정체성을 모색하면서 자신들의 눈을 에스파냐라 섬의 과거로 돌렸다. 하지만 그들은 대부분이 흑인이거나 몰라토들이 차지하고 있던 신흥국가에서 자신들이 찾던 원형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자 그 섬이 에스파냐라라고 불리던 시기로 돌아갔고, 거기서 인종적 패러다임을 해체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상징인 엔리키요를 찾아냈다.

이렇게 도미니카의 권력담론은 흑인 혹은 몰라토를 완전히 배제하면서, 도미니카공화국이 동질적 인종으로 이루어졌다는 신기루를 창조한다. 갈반은 도미니카공화국 역사를 낭만적으로 서술하면서, 식민지 주민들을 마지막 타이노 족장의 후손들, 즉 스페인 사람들의 비인간적인 잔인함과 탐욕에 맞서 싸운 사람의 후손으로 제시한다. 본 글은 도미니카공화국 역사의 ‘백인화’ 뒤에는 아프리카인들의 현실이 있지만, 갈반이 어떻게 『엔리키요』를 통해 도미니카인들에게 에스파냐라 섬에 단지 백인과 원주민과 혼혈인만이 존재한다고 믿게 하면서 자신들을 엔리키요의 후손으로 동일시하게 되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핵심어 국가정체성 형성, 도미니카 소설, 마누엘 데 헤수스 갈반, 엔리키요, 토대소설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327-2010-A00561).

1. 들어가는 말

산토도밍고의 ‘도미니카인 박물관(Museo del Hombre Dominicano)’ 입구에는 도미니카공화국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세 명의 역사적 인물의 석상이 세워져 있다. 중앙에는 오른손을 뻗어 십자고상을 들고 있는 바르톨로메 데 라스 카사스(Bartolomé de las Casas) 신부가 있고, 그의 오른쪽에는 창을 들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있다. 그는 스페인 정복자들과 맞서 반란을 이끈 타이노 원주민이자 엔리케라는 기독교 이름으로 세례 받고 ‘엔리키요’라고 알려진 구아로쿠야(Guarocuya)이다. 그리고 라스 카사스 신부의 왼편에는 양팔을 높이 들어 방금 끊어버린 쇠사슬을 보여주는 어느 노예가 있다. 그는 바로 16세기에 15년 간 정복자들을 피해 도망친 후 도미니카 남동쪽에 1만 5천명에 달하는 반란 노예들의 정착촌을 건설한 아프리카계 도미니카인의 지도자 세바스티안 렘바(Sebastián Lemba)이다.

박물관 앞에서 있는 이 세 사람은 도미니카공화국의 인종적 정체성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유럽 백인을 대표하는 라스 카사스 신부는 원주민의 수호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국왕 카를로스 5세 앞에서 원주민들도 불멸의 영혼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하느님의 아들들이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중앙에 있고, 오른쪽에 구아로쿠야가 있다는 사실은 독립 이후 도미니카 지식인들의 대부분이 자신들의 사회는 에스파놀라 섬의 원주민의 특징을 지닌 스페인 지향적 사회라고 주장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보여준다. 반면에 세바스티안 렘바가 왼편에 위치한다는 사실은 아프리카의 혈통이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¹⁾

1) 아프리카의 영향을 부정하는 이런 정책은 라파엘 레오니다스 트루히요(Rafael Leonidas Trujillo) 독재정권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시행된다. 이후 도미니카 국가정체성 형성에 관한 연구는 다소 방향을 바꾸어 흑인의 영향을 포함시키려고 하지만, 아직도 도미니카공화국에 가장 커다란 흔적을 남긴 것이 스페인적인 요인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예를 들어 도미니카의 저명한 문화인류학자인 카를로스 도발(Carlos Dobal)은 1981년의 글에서 도미니카 국가성을 형성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우리가 보기에 오늘날 문화의 틀은 기본적으로 스페인적이다. 몇몇 분야에서

역사적으로 도미니카공화국의 사회는 스페인적인 것을 수용하면서 백인성을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요소로 객관화했으며, 아프리카적인 것을 배척하면서 그것을 인종적으로 흑인인 아이티의 것으로 간주했다. 즉, 지배계층이 유포시킨 모델에 의거하여, 스페인 지향성을 추구하면서 아이티적인 것을 거부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런 대립 관계는 아이티와 도미니카의 관계를 규정하고, 전통적으로 권력을 추구했던 계층이 만들어낸 반(反) 아이티 감정을 야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Zaiter 2000, 1). 스페인 지향성은 도미니카공화국이 독립한 상황에서 유래된다. 도미니카공화국은 스페인 치하에서 독립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아이티 흑인 공화국에 점령되어 22년간(1822-1844) 통치를 받았다. 이런 이유로 도미니카공화국의 주요 독립 전투는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와 달리 스페인과 맞서 대항한 것이 아니라, 흑인과 물라토로 이루어진 이웃 국가와의 싸움이였다.

옛 식민지에서 유럽의 모든 잔재를 제거한 유혈 혁명으로 성취된 ‘흑인 국가’의 존재는 라틴아메리카 백인 엘리트들에게 중대한 위협이었다(Carrón Namnún 2009, 183-184). 아이티 혁명 이후, 백인 엘리트들은 인종 혁명으로 자신들의 특권적 위치를 빼앗길지도 두려움을 느꼈다. 그러나 에스파냐노라섬에 살고 있던 대부분의 주민은 노예제를 복구시킬 가능성이 있고, 적어도 현실적으로 아이티 점령 이전에 가지고 있던 특권을 보존하려고 하던 백인 엘리트들에게 종속되느니, 차라리 아이티의 통치 아래 있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여기고 있었다(Carrón Namnún 2009, 184). 그래서 도미니카공화국의 지배계급은 백인 문화 중심의 국가 정체성 담론이 대부분의 국민에게 아프리카적 요소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설득시키고 아이티에서 독립할 수 있는

흑인이 이바지하긴 하지만, 그것은 주변적일뿐 본질적이라고 여겨질 수 없다.” (Dobal 1981, 103)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도미니카공화국 정체성에는 아프리카의 혈통도 포함되어 있다는 상징으로 ‘도미니카인 박물관’에 램바를 포함시키자, 석상이 건립된 1980년대 초에 도미니카 보수층은 심하게 반발했다. 데이비드 하워드(David Howard)는 도미니카공화국의 인종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그 이유를 “아프리카의 유산은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제도적 차원에서도 불편했기 때문이다.” (Howard 2001, 8)라고 밝힌다.

유일한 방법이라고 여겼다.

식민지 시절의 크리오요 계층보다 아이티인들과 문화적·인종적으로 더 친근하다고 여기던 도미니카인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국가 정체성 담론은 도미니카의 공식 역사학이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세 개의 신화를 통해 이루어졌다. 첫째는 수탈과 학대 혹은 종속이 배제된 주인과 노예의 목가적 관계의 설정이었다. 둘째 신화는 에스파놀라 섬의 노예들은 항상 아이티 침략자들의 지휘 아래 있었던 자유 노예의 신분보다는 크리오요 주인의 노예가 되기를 선호했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다(Deive 1981, 137). 셋째 신화는 대부분의 도미니카인들의 신체적 특징은 흑인과의 혼혈이 아니라, 에스파놀라 섬의 최초 주민들, 즉 원주민과 혼혈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신화는 도미니카공화국의 문화에서 아프리카적 요소를 배제하면서, 그것을 도미니카인들과는 동떨어진 아이티의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여기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신화는 서로 연결된다. 그것은 우선 에스파놀라 섬의 서쪽에 대농장제도를 확립하여 경제적 수탈을 일삼고 흑인노예를 짐승처럼 취급하던 잔인무도한 프랑스 식민주의자들과 달리, 에스파놀라 섬의 동쪽을 차지하고 있던 스페인 사람들은 노예와 우호적인 관계를 이루면서 결혼을 통해 혼혈을 이루고, 실질적으로 인종간의 사회적 차이를 없앴다는 논지에 바탕을 둔다. 이것은 산토도밍고의 노예들이 신생 아이티와 합칠 이유가 없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가톨릭에 바탕을 둔 스페인 문화가 열등 종족의 원시 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을 배척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으로 발전한다.²⁾

한편 세 번째 신화는 전사 엔리키요가 왜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지와 관

2) 이런 신화는 역사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있지 않다. 17세기와 18세기에 산토도밍고에서의 주인과 노예 관계가 '인간적 감정' 혹은 '인종차별의 부재'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당시의 법은 어떤 상황에서도 노예보다 주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었으며, 모든 면에서 흑인의 열등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또한 흑인노예들의 일으킬 수 있는 반란에 혹독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Deive 1981, 117).

련이 있다. 가톨릭의 상징에 의하면 성부 오른편에 성자가 앉는다. 마찬가지로 엔리키요의 위치는 도미니카 지식인들이 원주민의 문화적·인종적 특징을 선호한다는 것을 상징한다. 또한 타이노 원주민의 지도자가 원주민 이름인 구아로쿠야가 아니라 정복자들이 붙인 이름으로 알려졌다는 사실은 역사적 인물이 '치장' 되어 도미니카 엘리트의 유럽 지향적 범주 속에서 형성되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마누엘 데 헤수스 갈반(Manuel de Jesús Galván)의 『엔리키요 *Enriquillo*』(1882)는 바로 이 엔리키요를 시대를 초월한 국가적 영웅으로 만든 작품이며, 원주민 유산의 신화를 널리 전파하고 흑인의 존재를 부정함으로써 도미니카공화국의 정체성을 형성한 대표적 토대소설이다.

II. 마누엘 데 헤수스 갈반의 『엔리키요』는 어떤 작품인가?

마누엘 데 헤수스 갈반의 『엔리키요』는 3부로 이루어져 있다. 1부는 에스파놀라 섬의 낭만적 묘사와 1503년에 니콜라스 데 오반도(Nicolás de Ovando)의 지시로 자행된 하라구아(Jaragua)의 원주민 학살 장면이 대조되면서 시작한다. 이 당시 구아로쿠야는 에스파놀라 섬의 추장 아들로 어린아이이며, 그의 고모이자 멘시아(Mencía)의 어머니이며 에르난도 데 게바라(Hernando de Guevara)의 과부인 아나 데 게바라(Ana de Guevara)와 함께 살고 있다. 그런데 대학살이 일어난 지 며칠 후, 아나의 사촌인 구아로아(Guaroa)가 나타나 아이를 산으로 데려가서 자유롭게 키우고 섬의 부족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피력한다.

페드로 모히카(Pedro Mojica)는 하라구아의 총독 오반도에게 아이가 사라졌음을 알리고, 아나의 재산을 몰수하고자 음모를 꾸민다. 그러나 오반도는 아나를 보호하고자 한다. 한편 바르톨로메 데 라사 카사스 신부는 유혈상태를 막으려고 노력하지만, 그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얼마 후 구아로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신부들에게 인도된 구아로쿠야는 베라 파스 수도원으로 가고, 그곳에서 엔리케라는 이름으로 세례 받는다. 그리고 오반도의

측근인 디에고 벨라스케스(Diego Velázquez)의 보호를 받고, 그가 쿠바 정복을 위해 산토도밍고를 떠나자 프란시스코 데 발렌수엘라(Francisco de Valenzuela)의 보호를 받게 된다.

그런 동안 스페인에서 디에고 콜론(Diego Colón)은 에스파놀라 섬의 총독으로 임명되고, 마리아 데 톨레도(María de Toledo)와 결혼하여 에스파놀라 섬에 도착한다. 오반도는 원주민의 대부분을 학살한 후 스페인으로 돌아간다. 디에고 콜론은 에스파놀라 섬에 원주민 공화국을 세우려는 꿈을 이루고자 자기 아버지 콜럼버스가 발견한 땅에서 부왕의 권리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하고, 결국 그 권리를 인정받는다. 바로 이 부분에서 후안 데 그리할바(Juan de Grijalva)와 마리아 데 쿠에야르(María de Cuéllar)의 사랑이야기가 시작된다.

2부는 페드로 모히카가 디에고 벨라스케스에게 충성을 다하기 위해 꾸미는 음모에 관한 이야기로 계속된다. 벨라스케스는 마리아 데 쿠에야르와 결혼하고자 하고, 결국 후안 데 그리할바와 마리아 데 쿠에야르는 헤어지게 된다. 그리할바는 디에고 데 니쿠에사(Diego de Nicuesa)와 알론소 데 오헤다(Alonso de Ojeda)가 이끄는 원정대에 참가하고, 마리아 데 쿠에야르는 부왕 부부의 도움으로 벨라스케스와의 결혼을 연말까지 연기시킨다.

여기에서는 원주민에게 자유를 주기 위한 몇 가지 행위가 나타난다. 특히 이것은 안토니오 데 몬테시노스(Antonio de Montesinos) 신부의 말에서 가시화된다. 이것은 그가 어느 일요일 미사에서 산토도밍고의 엔코멘테로들,³⁾ 관

3) 엔코미엔다(encomienda)는 스페인 식민지에 설치된 사회·경제적 성격의 제도로, 원주민에게 강제노동을 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것의 기능은 원주민들이 엔코멘테로들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엔코멘테로들은 원주민들을 인격체로 대하며 그들을 교육시키고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의무를 띠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악용되었고, 결국 에스파놀라 섬에서 원주민을 거의 전멸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갈반은 『엔리키요』에서 엔코미엔다 제도에 관해 이렇게 설명한다. “다시 대서양을 물길을 가르면서, 바르톨로메 데 라스 카사스는 그 누구도 깨뜨릴 수 없고, 자기 양심에 깊이 뿌리박힌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매일 막대한 사망자를 초래하는 탄압에서 원주민을 구하기 위해서는 엔코미엔다라는 치명적인 제도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것이었다(Galván 1998, 208).

리들, 그리고 주요 인사들에게 “무슨 권리와 권한으로 당신들은 자신의 땅에서 평화롭고 온순하게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그토록 가증스러운 전쟁을 벌였고, 그 사람들을 전대미문의 죽음으로 몰아갔는가?”(Galván 1998, 140)라고 묻는 장면에서 극대화된다.⁴⁾ 또한 일주일 후에 열린 미사에서 몬테시노스 신부는 다시 자신의 원칙을 밝히면서 보다 강력하게 박해자들에게 저주의 말을 내뱉는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도미니코 수도회 공동체가 들치기나 살인자들에게 성체를 주지 않는 것처럼 엔코멘테로들에게 성사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선언한다. 몬테시노스 신부는 이들을 욕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국왕에게도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한다. 그 결과 원주민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부르고스 법령⁵⁾이 선포된다.

3부는 엔리키요의 봉기를 서술한다. 여기서 엔리키요는 페드로 모히카가 드러운 여러 장애를 극복하고 마침내 멘시아와 결혼한다. 얼마 후 엔리키요의 보호자인 프란시스코 데 발렌수엘라가 세상을 떠난다. 그러자 그의 아들인 안드레스(Andrés)는 엔리키요를 모욕하면서 그를 엔코멘다도라는 굴욕적인 신분으로 만들고, 멘시아의 명예를 더럽히려는 어리석은 행동을 범한다. 그러자 엔리키요는 산후안 데 라 마나구아 사법당국에 호소하지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산토도밍고로 가서 똑같이 요구하지만, 그곳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바르톨로메 데 라스 카사스 신부가 스페인에 체류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누구도 자신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자, 그는 자기 손으로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결심한다.

그는 원주민 부족의 도움을 받아 자기 조상들의 땅인 바오루코(Bahoruco)

4) 이 설교는 1511년 12월 11일 일요일에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5) 1512년 12월 27일에 스페인의 부르고스에서 선포된 법령으로, 신세계 정복과 식민화로 야기된 원주민의 법적 문제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다. 즉, 원주민은 자유인이며, 스페인 국왕은 원주민들의 주인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의무를 지니고 있고, 원주민들이 견딜 수 있을 한도 내에서 노동을 강요하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며, 원주민들이 기독교인이 되기를 거부할 때에만 그들과의 전쟁이 합당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지에서 무력 봉기한다. 그러자 섬의 각지에서 온 원주민들이 그와 가세하여 싸움을 벌인다. 그렇게 13년 동안 엔리키요는 반란을 벌이고, 마침내 1533년에 카를로스 5세는 그의 요구가 합당하다고 인정하며, 칙서를 통해 그를 사면하고 원주민 반란군에게 자유를 주고, 엔리키요가 부하들과 함께 보야(Boyá) 섬과 그 인근에 정착하여 제국을 세울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III. 『엔리키요』와 도미니카공화국의 국가정체성 형성

『엔리키요』는 출간된 지 130년이 지났지만, 인종적 측면에서 도미니카 국민의 자기인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아직도 도미니카공화국 문학에서 정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19세기에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자국의 유토피아적 동질성을 찾으려고 노력했고, 그로 인해 커다란 역사적 공백이 야기되었다(Miletti 2005, 41). 도미니카공화국의 경우 그곳의 엘리트들은 당대에 유행했던 낭만주의 문학을 추구하고, 국가 정체성을 모색하면서 자신들의 눈을 에스파놀라 섬의 과거로 돌렸다. 하지만 그들은 대부분이 흑인이거나 몰라토들이 차지하고 있던 신흥국가에서 자신들이 찾던 원형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자 그 섬이 에스파놀라라고 불리던 시기로 돌아갔고, 거기서 인종적 패러다임을 해체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상징인 엔리키요를 찾아냈다.

이렇게 도미니카의 권력담론은 흑인 혹은 몰라토를 완전히 배제하면서, 도미니카공화국이 동질적 인종으로 이루어졌다는 신기루를 창조했다. 그 순간부터 흑인이나 몰라토라는 용어는 흑인이라고 여겨진 아이티 인들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도미니카공화국 국민은 『엔리키요』에서 상징적으로 묘사된 위대한 원주민 전사와 스페인 식민자의 후손으로 이해되었다.⁶⁾ 이

6) 갈반은 소설에서 묘사된 원주민 반란 이전의 흑인 노예반란에 관해서 말하지 않으며, 흑인들이 노예제에서 도망쳐 산속으로 들어가 원주민들과 함께 살았다는 사실도 누락시킨다.

런 방식으로 권력담론은 허구적 원주민 조상을 만들어냈고, 동시에 국가의 신화적 과거를 창조했던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갈반의 목적은 엔리키요라는 원주민 족장을 도미니카공화국의 영웅으로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도미니카공화국에게 원주민 정체성을 부여하고 국민들에게는 스페인 제국의 권력 복구를 지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런 점에서 갈반의 『엔리키요』는 역사적 맥락이나 문학적 맥락과 분리될 수도 없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는 작품이다. 이 소설이 출간된 19세기 중반에 낭만주의는 가장 중요한 문학 사조였고, 라틴아메리카 문학에서 낭만주의의 핵심 요소는 바로 인디아니즘(indianismo)⁷⁾였다. 이것은 원주민과 그들의 전통 속에서 전개되고, 원주민들을 스페인 사람들에게 희생되었지만 고귀한 성품을 지닌 중심인물로 등장시키면서 그들을 찬양한다(Meléndez 1934, 9). 또한 호세 엔리케 로도(José Enrique Rodó)도 19세기 작가들이 원주민에게 매력을 느꼈다고 설명하면서, “작가들은 자신들의 눈을 원주민 부족의 순수함과 고통에서 우리나라 오는 시라는 샘물로 돌렸다. 이런 동기는 당시의 특징인 자율성에 대한 열정과 일치한다.”(Rodó 1958, 202)라고 지적한다.⁸⁾

19세기 중반의 도미니카공화국 역사는 문화 영역뿐만 아니라 정치 분야에서도 극적인 변화를 맞았다. 그러자 갈반은 산토도밍고가 스페인의 지배로

7) 이 용어를 우리말로 ‘원주민주의’라고 번역할 경우는 indianismo와 indigenismo가 혼동될 수 있다. ‘인디아니즘’은 식민지 시대로 돌아가 원주민을 주요 인물로 삼으면서, 그를 목가적이고 이상적으로 그리는 낭만주의에 속한다. 반면에 ‘인디헤니즘’은 농촌을 배경으로 삼으면서 원주민의 수탈과 불평등을 비롯해 백인 지배계층의 야만성을 고발하는 사실주의 성격을 띤다.

8) 콘차 멜렌데스(Concha Meléndez)는 인디아니즘 소설의 특징은 거의 대부분 이미 정복 시기에 쓰인 문학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19세기 작가들은 단 순히 바르톨로메 데 라스 카사스의 익히 잘 알려진 모델을 그대로 따라했을 뿐이었다. 그의 책 『서인도 역사 Historia de las Indias』는 1552년부터 1561년 사이에 쓰였으며, 1875년에 처음으로 출간되었다. 이 시기는 바로 인디아니즘 소설이 절정에 있던 순간이었고, 『서인도 역사』에 기록된 잔인한 행위들을 읽었다는 것은 스페인 식민지에서 독립한 영토에서 반 스페인 감정을 조장했다. 멜렌데스는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인디아니즘 문화 전통이 라틴아메리카의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강했다고 지적한다(Meléndez 1934, 108).

돌아가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그것은 그가 “스페인 지배는 모든 사회적 원칙의 닳아며, 산토도밍고를 위협하는 유해한 요소에 대항하는 것” (Sommer 1983, 117)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좀머가 지적하듯이, 여기서 ‘유해한 요소’는 아이티인들이었다. 친 공화주의자들과 친 아이티주의자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도미니카공화국은 아이티에 병합되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두 번째 스페인 통치(1863-1865)에 서명했다. 갈반은 스페인에 대한 충성을 버리지 않은 작가였다. 그는 외국에 체류하면서 스페인 왕실에 계속 봉사했으며, 바로 그 망명 기간에 『엔리키요』를 저술했던 것이다(Stinchcomb 2009, 38).

그는 당대의 유일한 국내 잡지인 《이성 *La razón*》에 글을 기고하면서, 검은 피부의 도미니카 동포들에게 스페인의 통치를 받는 것보다 아이티를 더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을 설득시키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런 목적을 이루지 못하자, 갈반은 대부분의 도미니카 사람들이 스페인보다 이웃국가인 아이티와 더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런 이유로 그는 자기 독자들을 식민지 초기의 시기로 데려가면서 그들에게 정복자들의 자비심을 보여주고 동시에 이들이 원주민을 잔인하게 학살했다는 사실을 제거하면서 스페인의 위대함을 찬양하고자 했고, 이런 방법으로 그는 도미니카 인들이 공유하는 공통의 유산, 즉 인종과 문화적 측면에서 아이티 인들과 차별성을 보여주는 유산을 발견하게 해주었다. 그의 작품 『엔리키요』는 19세기 낭만주의 소설 기법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교훈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으며, 갈반은 도미니카공화국의 역사를 떠올려주기 위해 ‘도미니카의 전설’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이렇게 갈반은 원주민 전통에 바탕을 둔 도미니카 국가 정체성을 주조하면서, 도미니카 인들에게 그들이 공유하는 유산을 발견하게 만든다. 그리고 동시에 아이티 인들과의 인종적·문화적 차이를 형성하는데 이바지한다. 즉, 『엔리키요』는 도미니카 인들에게 백인과 메스티소와 원주민들이 섬에 거주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며, 동시에 원주민들은 16세기에 생존해 있었으

며, 따라서 백인들이 아닌 도미니카 인들에게 엔리키요의 후손이라는 신화를 창조해준다. 갈반은 원주민에게서 역사적 인물을 발견했고, 그와 더불어 하위주체인 원주민을 스페인 사람과 동등한 위치로 올려놓으면서,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던 타이노 원주민을 영웅으로 만들고, 그에게 도미니카인들의 저항정신을 부여했던 것이다(Stinchcomb 2009, 15).

또한 갈반은 『엔리키요』의 원주민을 이용하여 도미니카공화국의 신화를 창조한다. 갈반이 이 작품에서 전개하는 국가창조의 유토피아 담론은 정치 권력을 지배하는 사람들의 우월성을 유지시키고 그들의 인종적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도미니카공화국이 원주민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이 신화는 도미니카인들을 타이노 부족이 아니라 비 흑인으로 여기게 만드는데 공헌한다. 이렇게 지역적 우상은 국가의 신화로 변모한다(Mileti 2005, 43).

IV. 『엔리키요』와 역사 왜곡을 통한 국가 정체성 형성

『엔리키요』는 1503년부터 1533년 사이에 일어난 에스파놀라 섬의 식민화를 서술한다. 갈반은 바르톨로메 데 라스 카사스 신부와 곤살로 페르난데스 데 오비에도(Gonzalo Fernández de Oviedo) 같은 역사가들이 저술한 연대기에 바탕을 두고 소설의 역사적 토대를 구성한다. 갈반의 소설에서 이런 역사적 사실의 변질은 왜 이 작품이 도미니카공화국의 토대소설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을 이루며, 왜 도미니카공화국의 문학 속에서 흑인 정체성의 부정이 『엔리키요』로 시작되는지(Stinchcomb 2009, 15) 그 이유를 보여준다. 이런 역사 왜곡을 통해 마누엘 알론소(Manuel Alonso)의 『히바로 *Gíbaro*』⁹⁾와 마찬가지로, 마누엘 데 헤수스 갈반의 소설은 국가정체성 형성, 특히 19세기의 인종적 정체성 형성에 매우 중요한 작품으로 자리 잡는다.

9) 마누엘 알론소의 『히바로』에 나타난 푸에르토리코의 국가정체성 형성에 관해서는 송병선(2011)의 글을 참고할 것.

갈반은 이렇게 도미니카공화국 역사의 공식 텍스트를 인용하면서 자기 작품에 합법성을 부여했다. 그는 자기 소설이 바탕을 두고 있는 권위 있고 특권적 위치에 있는 연대기의 대목을 각주로 붙였다. 하지만 그의 작품에는 연대기에 등장하는 역사적 사실이 누락되어 있다. 갈반의 이런 자의적 자료 선정은 도미니카공화국의 문화적·역사적 기초를 왜곡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런 왜곡은 도미니카 독자들에게 19세기 스페인 제국에 갖고 있던 견해를 다시 점검하게 만들었고, 아이티에 대한 그들의 충성을 의심하게 했다. 줌머는 “이 소설에 호감을 가진 독자는 역사적으로 충실하다고 오판하면서 칭찬했지만, 반대로 비방자들은 역사적 사실의 변조에 당혹해했다.” (Sommer 1983, 117)라고 지적한다. 분명한 것은 갈반의 소설이 스페인 정복에 관한 역사적 자료를 조작하고 있으며, 에스파놀라 섬의 초기 연대기가 밝히고 있는 아프리카 인종의 존재에 관한 사실을 누락하면서 도미니카공화국의 기원을 허구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엔리키요』에서 발견되는 첫 번째 역사적 누락은 1519년부터 1533년 사이에 일어난 원주민 반란 시기의 도미니카공화국 원주민 인구에 관한 것이다. 이 소설은 독자를 16세기 초로 데려가면서, 아메리카 식민지가 시작했을 때 흑인들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아버지들은 스페인 사람들이고 어머니들은 원주민이었다고 설정한다. 정복이 시작된 16세기 초에 원주민 인구는 40만 명에서 50만 명에 이르렀지만, 16세기 중반에 원주민은 거의 대부분 사라진 상태였다. 오비에도의 연대기에 의하면, 신대륙 정복이 시작된 지 10년 만에 원주민은 불과 500명만 남아 있었다(Tolentino Dipp 1992, 93). 갈반의 작품에 나타난 역사적 사실의 왜곡으로, 독자들은 그 당시 원주민이 많았으며, 16세기에는 단지 원주민과 스페인사람, 그리고 메스티소만이 존재했다고 믿게 되었다.

물론 갈반은 흑인노예들이 16세기부터 그곳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자들이 아프리카 노예의 존재를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비록 독자들이 1496년부터 산토도밍고에 아프리카인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더라도, 그들의 가족사를 통해 하라구아에서 반란이 일어나던 시기(1519-1533)에 아프리카 노예들이 산토도밍고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다(Stinchcomb 2009, 39). 라스 카사스 신부가 스페인 국왕에게 아프리카 노예들을 더 많이 보내야 “이 땅이 유지될 수 있고 원주민들을 해방시킬 수 있을 것”(Las Casas 1986, 371)이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다. 갈반은 원주민을 해방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라스 카사스 신부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그의 소설은 원주민 해방이 아프리카 노예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으며, 1531년에 라스 카사스 신부가 인종차별적 전략을 철폐했다는 것도 말하지 않는다.

흑인들과 관련된 이 소설의 또 다른 역사적 문제는 하라구아의 반란과 연관이 있다. 갈반은 자기 작품에서 16세기의 역사책들을 인용하여 원주민들이 산으로 도망쳤다고 밝힌다. 하지만 이것은 엔리키요의 반란 훨씬 이전에 일어난 일이었다. 작가는 아프리카 노예들 역시 도망쳤으며, 이들이 원주민들과 평화롭게 공존했다(Tolentino Dipp 1992, 251)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는다. 갈반의 소설에 의하면 카를로스 5세는 엔리키요에게 “그와 그의 모든 부하들에게 무기를 버린다면 절대적인 은총과 완전한 자유를 부여할 것이며, 그에게 토지와 왕실 소유의 목축을 제공할 것이고”(Galván 1998, 285)라는 칙서를 보내는데, 이것은 갈반이 하라구와의 반란에 흑인이 참여했다는 정보를 완전히 왜곡하고 있는 대목이다. 그것은 라스 카사스 신부와 오비에도의 연대기가 원주민들의 자유와 보호는 족장 엔리키요와 함께 도망친 노예들과 비기독교 원주민들의 자유를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지적하기 때문이다(Stinchcomb 2009, 40).

또한 스페인 아버지들과 원주민 어머니들만이 소설에서 묘사되었다는 사실도 매우 중요하다. 백인과 원주민의 혼합이 결혼을 통해 문학적으로 그려지는 것은 그리 놀라운 사실이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당시 대부분의 스페인 아버지들이 원주민 여자들과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은 채 아이들을 낳았고,

그들을 자기 아이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Miletti 2005, 46). 그리고 갈반은 스페인 남자들이 원주민 여자들을 학대했다는 사실도 누락시키고 있다. 이런 이유로 스티치콤(Dawn Stinchcomb)은 이렇게 주장한다.

이 소설은 도미니카 흑인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으며, 도미니카공화국 사회 형성에서 그들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있다. 이 소설에는 아프리카 인들도, 흑인들도, 혹은 몰라도도 없으며, 노예제의 위험도 엔리키요의 관점에 한정되어 있고, 따라서 모든 타이노 원주민들의 고통에만 국한되어 있다. 도미니카인들의 검은 피부색은 그들과 영웅 엔리키요와의 관계로 교묘히 설명되어 있기에, 그들은 아이티 침입자들과 구별되었고, 원주민 국가로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었다.(Stinchcomb 2009, 15)

이렇듯 갈반은 이 작품에서 에스파놀라 섬에 흑인들이 존재했거나 존재한다는 사실을 거의 언급하지 않으며,¹⁰⁾ 스페인 남자와 원주민 여자와의 결합을 통해 도미니카공화국의 국가정체성을 주조한다. 이것은 이 소설을 쓸 무렵인 1882년에 갈반을 비롯한 도미니카공화국의 엘리트들은 투생 루베르튀르(Toussaint Louverture)가 에스파놀라 섬을 분리될 수 없으며 옛 노예들에 의해 통치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위협을 받은 나머지, 도미니카인들이 스페인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도미니카공화국의 자주권을 유지할 방법을 찾았지만, 대부분의 주민이 백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Stinchcomb 2009, 9). 게다가 도미니카공화국의 백인화 과정은 쿠바나 푸에르토리코처럼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갈반은 ‘백색’의 의미를 변질시켜 원주민의 뿌리와 원주민과 스페인 사람의 혼혈을 주장하면서, 도미니카의 혈통을 순화시키고자 했던 것이다(Miletti 2005, 47). 즉, 갈반의 작품은 도미니카 인들과 아이티인들의 차이를 부각시

10) 『엔리키요』에서 갈반은 단지 두 번만 아프리카인의 존재에 관해 언급한다. 첫 번째는 “바오루코 산지에서 세 명의 비엔비엔들이 체포되었다. 이들은 아직도 그곳에서 무력봉기하고 있는 아프리카 인종의 야만족 부족에 속해 있었고……”(Galván 1998, 32)라고 쓴 각주에서 나타나고, 나머지 하나는 쿠에야르 자작의 집 정원에 “두 줄로 길게 늘어선 많은 아프리카 노예들”(Galván 1998, 102)라는 말을 통해 그의 부유함을 묘사하면서 등장한다.

키려는 목적을 띠고 있었다. 그리고 그 결과 대부분의 도미니카 인들은 『엔리키요』에서 나타난 국가의 ‘백인성’을 국가의 기원에 대한 진정한 표현으로 수용했던 것이다(Stinchcomb 2009, 17).

V. 신화와 역사의 간극, 그리고 그 의미

갈반의 소설 『엔리키요』에 나타나는 역사 왜곡의 문제는 주인공 엔리키요에 관한 논쟁으로도 확장될 수 있다. 원주민의 영웅 엔리키요가 역사적 인물인지 아니면 갈반이 허구화시킨 신화적 인물인지에 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 인물의 실체에 관해서 많은 결론이 도출되었지만, 오늘날까지도 역사가들과 작가들은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Joa 2009, 259). 실제로 갈반은 자기 작품에서 신세계 연대기작가들의 기록에 충실하게 주인공의 업적을 서술한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점에서 문학 작품의 엔리키요는 역사적 엔리키요와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논란 중의 하나는 구아로쿠야와 엔리키요가 과연 동일한 인물인가 하는 물음이었다. 두 사람은 아나카오나(Anacaona)의 사촌이었다. 하지만 구아로쿠야는 바오루코에서 반란을 일으킨 후 스페인군에게 처형당했다.

역사적으로 구아로쿠야와 엔리키요가 다른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자료는 여러 개다.¹¹⁾ 라스 카사스 신부와 오비에도의 연대기뿐만 아니라,¹²⁾ 다른 연

11) 갈반이 주로 참고했던 라스 카사스 신부의 책과 페르난데스 데 오비에도의 책이 대 표적이다.

12) 라스 카사스 신부는 이렇게 적고 있다. “구아로쿠야라는 사람은 중요 인사였고, 왕비 아나카오나의 조카였으며,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그곳을 도망쳤다. 그는 바오루코 산지로 도망쳤는데(...), 스페인 사람들이 그가 봉기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하자 군사령관은 사람들을 보내 그의 뒤를 쫓게 했고, 험준한 땅에서 그를 발견하자 교수형에 처했다.”(Las Casas 1986, Vol. 2, 44). 한편 오비에도는 이렇게 서술한다. “추장 구아로쿠야라고 불리는 그녀의 조카는 바오루코 산지에서 봉기했다. 그러자 군사령관은 130명의 스페인 군인들을 보내 그를 찾아 전투를 벌이도록 파견했다. 스페인 군인들은 그를 뒤쫓았고, 그를 체포하고서 교수형에 처했다(Fernández de Oviedo 1991, 83).”

대기작가들도 두 인물을 분명하게 구분한다. 그러나 『엔리키요』가 출간되면서 19세기 도미니카공화국 역사가들은 엔리키요와 구아로쿠야를 동일인물로 간주했으며, 이런 생각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¹³⁾ 이런 혼동은 아마도 두 족장이 바오루코 산맥에서 은신처를 찾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Joa 2009, 261). 하지만 구아로쿠야는 그곳에서 죽고, 엔리키요는 자유를 되찾는다. 이런 점에서 이후 세대들이 엔리키요와 구아로쿠야를 동일 인물로 받아들이게 만든 책임자는 갈반이라고 말할 수 있다(Joa 2009, 261). 의심의 여지없이 작가가 원주민 영웅을 그렇게 만든 것은 소설과 역사를 융합하려는 용의주도함에 기인하며, 그로 인해 그의 소설은 도미니카공화국과 나머지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 역사적 사실로 인정되었던 것이다.¹⁴⁾

엔리키요는 기독교적 사랑과 복종, 그리고 자기 보호자들을 존경하는 분위기 속에서 교육 받은 원주민이다. 갈반은 이 소설을 통해 엔리케를 원주민 부족의 해방자로 그린다. 하지만 여기서 이 족장이 반란을 일으킨 진정한 이유는 무엇이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발렌수엘라가 그의 아내 멘시아를 욕 보이려고 하자 자존심에 상처를 입어서 일까, 아니면 자기 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던 것일까? 많은 역사가들과 비평가들은 엔리키요의 반란의 진정한 목표가 개인적인 것이지, 자기 인종과의 동질감 때문이 아니라고 평가한다.

13) 역사가 카예타노 콜(Cayetano Coll)은 “구아로쿠야, 엔리키요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아이티의 족장”(Coll 1975, 228)이라고 밝히고 있다.

14) 이런 역사 왜곡이 있지만, 그것은 이 소설의 문학적 가치를 훼손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예를 들어 호세 알칸타라 알만사르(José Alcántara Almánzar)는 『도미니카 문학 선집 *Antología de la literatura dominicana*』에서 “『엔리키요』의 저자는 정보자들과 신세계에 도착한 최초의 여자들의 목가적 사랑을 사랑스럽게 그리고 있으며, 필연적으로 사라질 운명의 원주민에게 상징적인 범주를 부여한다. 족장 엔리키요가 당대의 틀 속에서 매우 현학적이라고 할지라도, 이 소설이 예술적 관점에서 매우 훌륭하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Alcántara 1972, 33)”라고 지적한다. 역사적 가치가 아닌 문학적 가치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페드로 콘데(Pedro Conde)는 “도미니카공화국에서 갈반의 『엔리키요』 보다 나은 작품들이 출간되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모델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지금은 『엔리키요』가 최고의 작품이다(Conde 1978, 9)”라고 주장한다.

안드레스가 멘시아를 탈취하려고 하자, 엔리키요는 봉기하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자기 아내가 처할 운명을 생각하자 절망한다. 반면에 그녀는 남편이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을 보고자하며 그를 따라 산으로 갈 작정이었다. 얼마 후 그들은 산으로 도주한다.(Suárez-Murias 1963, 57)

스페인 왕실은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여러 번 엔리키요와 협상한다. 이미 흑인과 원주민의 노동력 부족으로 에스파놀라 섬이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협약 중의 하나가 스페인 왕실을 대표한 군인 바리오누에보(Barrionuevo)와 엔리키요가 서명한 것인데, 여기서는 엔리키요가 원주민 부족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개인적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난다.¹⁵⁾ 다시 말하면, 엔리키요는 갈반의 소설이 보여주는 것과는 달리 자신의 이상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려는 영웅의 범주로 속하지 않는다. 역사가인 시프리아노 데 우트레라(Cipriano de Utrera) 신부 역시 당대의 충실한 증거를 통해 엔리키요의 진실을 밝힌다. 그는 엔리키요가 질투심 많은 남편이었고, 평화롭고 안정된 자신의 삶을 위해 자기 부족을 팔아버릴 수도 있는 사람이었을 뿐, 라스 카사스 신부나 기분에 따라 마음대로 쓴 연대기작가 오비에도가 제시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확신한다(Utrera 1973, 315).

이것이 역사적 현실이라면, 왜 갈반은 엔리키요를 이상화시키고 신비화시켰던 것일까? 프랑클린 구티에레스(Franklin Gutiérrez)는 엔리키요를 이상화시키려는 원인이 도미니카공화국의 정체성과 토착성 탐구에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독립투쟁에서 나타난 애국심 역시 도미니카공화국 원주민의 이상화에 기여했다. 이것은 작가들에게 스페인 침입자들이 갑자기 빼앗아버린 국가정체성을 발견하려는 관심을 일깨웠다(Gutiérrez 1999, 54)”라고 밝히면

15) 가령 마르티네스 알만사르(Juan Francisco Martínez Almánzar)는 이 협상 내용이 네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밝힌다. 첫째는 엔리키요의 휘하에 있는 모든 원주민들과 흑인들을 복종시켜 전쟁을 종식시킬 것이며, 둘째는 엔리키요의 부하들이 섬을 돌아다니며 도망친 원주민들을 체포할 것이고, 셋째는 체포한 원주민들을 원래의 농장으로 되돌려 보낼 것이며, 넷째는 엔리키요가 바오루코 산지를 떠나는 즉시 스페인 왕실은 그의 가족에게 목축과 먹을 것을 제공한다는 것이었다(Martínez Almánzar 2004, 149).

서, 그것이 바로 이 소설이 탄생한 낭만주의 시기의 특징이었다고 주장한다.

갈반은 도미니카공화국의 역사 속에 존재했고 자유를 위해 투쟁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흑인이나 물라토가 아니라, 스페인 문화를 지향하던 원주민 영웅을 이상화시킨다. 그렇다면, 왜 도미니카공화국 역사의 뿌리이자, 인종적·문화적·사회적으로도 중요한 구성체인 흑인 우상을 선택하지 않은 것일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그가 흑인을 이상화시키고 싶지 않았고, 말하고도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눈에 띄 정도로 물라토 인구가 많은 곳이지만, 그곳 국민들이 항상 흑인을 거부한다. 이런 이유는 19세기 도미니카공화국 지식인들이 창의력을 동원하여 정복시기에 말살된 인종을 찬양한 데에 있다. 그것은 첫째, 자신들의 혈통이 스페인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둘째는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던 역사와 세계관은 유럽적인 것이었기 때문이고, 셋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흑인을 자신들보다 열등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이다(Joa 2009, 267).

에스파놀라 섬을 아이티와 공유하는 도미니카공화국은 아이티와 치열한 전투를 벌였고, 거기서 승자는 항상 아이티였다. 그래서 도미니카공화국의 작가나 역사가들이 이 시기를 침묵시키려고 했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무기력하고 온순하며 굴욕을 당한 원주민 종족을 부각시켰고, 거기서 영웅 엔리키요가 탄생했던 것이다. 갈반의 펜에 의해 그는 원주민 권리의 위대한 수호자이며 자기 부족의 수난을 괴로워하는 애국자이며, 전쟁을 벌이지 않고 적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서도 정복자들에게 원주민들의 권리를 회복시켜줄 것을 요구하면서, 원주민의 마지막 후손들을 구원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다.

VI. 맺는말

19세기에 『엔리키요』의 독자들은 소설 속에서 유럽인종과 원주민의 혼합으로 세워진 국가의 탄생을 보았다. 그리고 그 이야기로 인해 도미니카공화

국 국민들은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갈반은 도미니카공화국 역사를 낭만적으로 서술하면서, 식민지 주민들을 마지막 타이노 족장의 후손들, 즉 스페인 사람들의 비인간적인 잔인함과 탐욕에 맞서 싸운 사람의 후손으로 제시한다. 하지만 그런 역사의 ‘백인화’ 뒤에는 아프리카인들의 현실이 있지만, 갈반은 섬의 반대편에 있는 아이티 흑인과 검은 피부의 도미니카공화국 국민들을 구별하면서 그런 현실을 부정한다. 『엔리키요』를 출판하면서, 그는 도미니카공화국 국민들이 에스파놀라 섬에 단지 백인과 원주민과 혼혈인만이 존재한다고 믿게 했고, 갈반은 16세기 중반에도 에스파놀라 섬에 원주민들이 존재했다는 신화를 만들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백인이 아닌 도미니카공화국 사람들은 엔리키요의 후손으로 자신들을 동일시하게 되었던 것이다 (Stinchcomb 2009, 41).

이것은 도미니카공화국에는 흑인/물라토 인구가 대부분이었지만, 흑인과 물라토는 원주민 혈통을 사회적 상승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사실도 의미한다. 도미니카공화국의 흑인과 물라타 주민은 자신들의 흑인성을 버리고서 자신들과 관련 없는 정체성에 매달렸다. 즉, 자신들의 검은 피부를 사회 지배층의 흰 피부와 비교하면서, 검은 피부의 도미니카공화국 사람들은 16세기에 말살되었던 원주민 조상에 바탕에 둔 정체성에 의존했다. 이렇게 자신들이 원주민의 후손이라는 사실은 흑인 노예보다 원주민이 백인 모델에 가깝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인종적 상승을 의미했다(Despradel 1972, 67).¹⁶⁾

원주민 엔리키요의 전설은 대부분의 도미니카공화국 주민들에게 수용되고, 이 책이 출간되면서부터 검은 피부의 도미니카공화국 사람들에게 흑인성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도피구가 된다. 이런 이유로 하워드는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원주민이라는 용어는 역사적·인종적 상태에 도전하는 것으로 발

16) 칼 데글러(Carl Degler)는 『희지도 않고 검지도 않은 *Neither White nor Black*』(1971)에서 브라질과 미국의 노예제와 인종관계를 연구하면서 ‘물라토 도피구(mulatto escape hatch)’라는 용어를 사용해 백인이 아니지만 흑인임을 거부하는 새로운 인종적 범주를 지칭한다.

전되며, 이것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현실에서 벗어난 계획이며, 아프리카 조상의 부정을 의미한다.”(Howard 2001, 44)라고 지적한다. 이렇게 갈반이 역사적 사실을 선택하고 생략하는 행위는 도미니카공화국 문화의 기초를 왜곡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역사를 바꾸게 되고, 이런 역사적이고 확증적인 사실의 부정이 아직도 지속되게 하는데 초석이 된다.

이런 점에서 마누엘 데 헤수스 갈반의 『엔리키요』는 문학이 역사를 구성하는데 일조하고 역사에 개입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바바 2011, 127) 대표적인 토대소설이다.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토대소설들이 독립 후 역사의 새로움 혹은 미숙함 때문에 발생하는 ‘역사의 비결정성’¹⁷⁾ 즉 역사의 빈틈을 채워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처럼, 갈반의 이 작품은 국가형성과정 시기에 소설을 통해 국가의 정당성을 강화해 줄 역사를 주조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도미니카공화국이 미래의 이상을 향하도록 역사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하지만 이 소설이 추구한 도미니카공화국의 정체성은 흑인을 배제하면서 이루어지는 허구적·상상적 정체성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런 한계는 20세기 후반에 들어와 흑인을 포함하여 진정한 도미니카공화국의 정체성을 재정의하려는 아이다 카르타헤나(Aida Cartagena)나 블라스 히메네스(Blas Jiménez) 같은 작가들에 의해 비로소 극복된다.

참고문헌

- 송병선(2011), 「19세기 푸에르토리코의 국가 정체성 형성과 흑인의 배제」, 스페인어문학, 59호, pp. 311-331.
- 폴 벤느(2004), 『역사를 어떻게 쓰는가』, 김현경/이상길 옮김, 새물결.
- 호미 바바(편)(2011), 『국민과 서사』, 류승구 옮김, 후마니타스.
- Alcántara Almánzar, José(1984), *Narrativa y sociedad en Hispanoamérica*.

17) 이것은 폴 벤느(Paul Veyne)의 용어로, 그는 『역사를 어떻게 쓰는가』에서 “과학은 규칙상 미완의 것이다. 역사만이 틈새들을 사실상 허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역사는 직물이 아니어서 울새가 없기 때문이다.”(벤느, 2004, 18)라는 말로 정의 내린다.

- Santo Domingo: INTEC.
- _____(1972), *Antología de la literatura dominicana*. Santo Domingo: Taller.
- Carrón Namnún, Hayden(2009), “La narrativa y el discurso sobre la identidad nacional dominicana,” Tesis Doctoral, Madrid: Universidad Autónoma de Madrid.
- Coll, Cayetano(1975), *La prehistoria de Puerto Rico*, San Juan: Editorial Universitaria.
- Conde, Pedro(1978), *Notas sobre el Enriquillo*, Santo Domingo: Taller.
- Deive, Carlos Esteban(1981), “La herencia africana en la cultura dominicana actual,” Bernardo Vega(ed.), *Ensayos sobre cultura dominicana*, Santo Domingo: Fundación Cultural Dominicana, pp. 105-143.
- Despradel, Lil(1972), “Les étapes de l’anti-haitiasme en République Dominicain,” *Nouvelles Optique*, No. 8, pp. 65-92.
- Dobal, Carlos(1981), “Herencia española en la cultura dominicana de hoy,” Bernardo Vega(ed.) *Ensayos sobre cultura dominicana*, Santo Domingo: Fundación Cultural Dominicana, pp. 63-104.
- Fernández de Oviedo, Gonzalo(1991), *Historia general de las indias*, Madrid: Bruno.
- Galván, Manuel de Jesús(1998), *Enriquillo: Leyenda histórica dominicana (1503-1533)*, México: Porrúa.
- Gutiérrez, Franklin(1999), *Enriquillo: Radiografía de un héroe glavaniano*, Santo Domingo: Búho.
- Howard, David(2001), *Coloring the Nation: Race and Ethnicity in the Dominican Republic*, Boulder: Lynne Rienner.
- Jaúregui, Carlos A.(2008), *Canibalia*, Madrid: Iberoamericana.
- Joa, Nancy(2009), “Enriquillo: Edición anotada y estudio crítico,” Tesis Doctoral, Madrid: UNED.
- Las Casas, Bartolomé de(1986), *Historia de las Indias*, Vol.1-3, Caracas: Biblioteca Ayacucho.
- Martínez Almánzar, Juan Francisco(2004), *Enriquillo, ídolo de barro*, Santo Domingo: Nueve de Octubre.
- Meléndez, Concha(1934), *La novela indianista en Hispanoamérica*, Madrid:

Hernando.

- Miletti, Luis(2005), “La construcción y desconstrucción de la identidad caribena,” Dissertation, Cincinnati: University of Cincinnati.
- Rodó, José Enrique(1958), *El mirador de Próspero*, Montevideo: Barreiro y Ramos.
- Rodríguez, Néstor E.(2004), “El rasero de la raza en la ensayística dominicana,” *Revista Iberoamericana*, Vol. LXX, No. 207, pp. 473-490.
- Sommer, Doris(2004), *Ficciones fundacionales*, Bogotá: Fondo de Cultura Económica.
- _____(1983), “El otro Enriquillo,” *Revista de Crítica literaria latinoamericana*, Vol. 9, No. 17, pp. 117-145.
- Stinchcomb, Dawn F.(2009), *Negritud literaria en la República Dominicana*, Quito: Abya-Yala.
- Suárez-Murias, Marguerite(1963), *La novela romántica en Hispanoamérica*, Salamanca: Talleres Gráficos Cervantes.
- Tolentino Dipp, Hugo(1992), *Raza e historia en Santo Domingo*, Santo Domingo: Editora Taller.
- Utrera, Cipriano de(1973), *Polémica de Enriquillo*, Santo Domingo: Editora del Caribe.
- Zaiter, Josefina(2000), “Un análisis psico-social de la identidad dominicana,” <http://uasd.edu.do/IPSU/Documentos%20y%20PDF/Un%20an%C3%A1lisis%20psicosocial%20de%20la%20identidad.pdf>

송병선

울산대학교 인문대학 국제학부 스페인·중남미 전공
avionsun@ulsan.ac.kr

논문투고일: 2012년 7월 9일
심사완료일: 2012년 8월 15일
게재확정일: 2012년 8월 17일

Formation of National Identity and Exclusion of the Blacks in Dominican Republic: *Enriquillo* of Manuel Jesús de Galván

Byeong Sun Song

University of Ulsan

Song, Byeong Sun (2012), Formation of National Identity and Exclusion of the Blacks in Dominican Republic: *Enriquillo* of Manuel Jesús de Galván.

146

147

Abstract It is well known that in the development of a Dominican national identity, Dominican elites combined race, nation, and religion, shaping a national identity that defined Dominicans as white, Catholic, and culturally Hispanic, in contrast to Haitians, characterized as being black and culturally African. Manuel de Jesús Galván's novel *Enriquillo* which was published in its entirety in 1882 gave the long-term impact to this anti-black sentiment. *Enriquillo* has remained popular in the Dominican Republic well into the twenty-first century and its appeal is due in part to the fact that Galván builds up a national legend and intertwines true historical figures with fictional characters. Even though the Amerindian population of Hispaniola was almost exterminated in mid-sixteenth century, the Dominican writer portrayed the Dominican people as the descendants of the brave Indians and the Spanish colonists, without mentioning the African presence. Because of this foundation novel, constructed by deformation and ellipsis of historical data, the Dominican elites could fill the gap of post-independence history and project an ideal future of Negrophobia in the ethno-racial construction of the Dominican nation. In this sense, Galván's novel suggests the necessary connection between fiction and history in the formation of national identity.

Key words Formation of national identity, Dominican novels, Manuel de Jesús Galván, *Enriquillo*, Foundational Fiction

